

정무수석은 국회 막후 접촉... 대통령은 양해 당부 '서포트'

청신호 켜진 이낙연 인준안... 청와대·정치권 긴박했던 하루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의 고비가 된 29일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은 긴박하게 움직였다. 청와대는 이날 하루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고 정치권도 요동쳤다.

애초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이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보고서를 논의한 뒤, 보고서가 채택되면 29일 본회의 때 인준안 표결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6일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데다, 29일까지 여야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대립 국면을 이어가면서 이날 보고서 채택조차 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청와대는 이날 오전부터 대야(對野) 설득에 총력을 쏟았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정 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장과 함께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 참석했다. 전 수석은 이 자리에서 주요국 특사단 활동 보고와 함께 "국정 공백 때문에 총리 지명을 서두른 것은 사실이다. 송구스럽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이 후보자의 인준에 대해 협조해줄 것을 부탁했다.

전 수석은 특히 이 자리에서 최근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

“인수위 없어 인사논란 불러”

국민의당 의원총회 격론 끝

“대승적 차원서 협조” 결론

한국당은 인준 거부 거듭 확인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전 수석은 또 “2005년 이전은 투기성 위장전입에 대해서 사전에 더 강력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슷한 시각, 국민의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 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호남 지역구 의원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등이 낙마 사유까지는 안 된다며 통과 쪽에 무게를 실었지만, 일부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오후 2시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두 번째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만약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원회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되면서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면서 “저는 5대 비리 배제 원칙이 깨졌

한 공정 사회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적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금의 논란은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 드린다”면서 “이미 발생한 논란들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 현실성 있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오후에도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를 계속했다. 그리고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인사청문 특위의 인사청문 심사결과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표결에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의당이 이런 입장을 나타냄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진 순간이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인준 거부를 확인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한 것까지 들은 후에도 압도적으로 총리 인준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가 됐다”며 “청와대가 다급한 나머지 총리인준을 받기 위해 즉흥적인 제안을 한다면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의정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 보고서 논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원석진, 정의당,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취임 20일 文대통령 안팎 돌발 악재에 ‘속앓이’

내각 인선 난항·北 잇따른 도발... 靑 “개혁 드라이브 제동 걸리는 일 없을 것”

취임 20일째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이 예상치 못한 안팎의 ‘악재’로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취임 초반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소통 행보와 과감한 개혁 의지를 선보이면서 국민의 지지 속에 국정운영에 탄력을 붙여왔지만 갑작스런 변수로 휘청거리는 상황이다.

우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위장전입 논란에 따른 내각 인선 지연이 문 대통령으로서의 안타깝다. 청문회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인사 원칙에 반하는 사례(배우자의 위장전입)가 드러나면서 야당 공세의 빌미를 주었다.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정권

초기 어느 정도 ‘상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이 부담스럽다.

북한은 새 정부 출범 뒷새뺑에 안 돼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임명되기도 전인 이달 14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더니 지난 21일과 29일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주일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쏜 셈인데 그사이 청와대는 세 번이나 NSC 상임위를 열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보수 정권 9년간 딱 막힌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한 새 정부 입장을 난처하게 하

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내세웠던 애초 대북정책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돌발 악재로 임기 초반에 국정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자 했던 청와대로서는 개혁에 제동이 걸릴까 우려하는 기색이 엿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예상치 못한 돌발 악재로 문 대통령이 임기 초반 마음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하지만, 국민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여당과의 공조, 야당과의 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위기를 돌파하면 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호남민심 완전히 돌아설라”... 태도 바꾼 국민의당

의원총회 총리 인준안 공방

호남여론 부담에 찬성 선회

국민의당이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협조기로 한 것은 당내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호남 출신인 데다 더불어민주당과 텃밭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인준안 처리를 거부할 경우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는 호남지역의 비판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가뜰이나 호남에서 지지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호남 민심이 완전히 돌아설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내 지역구 의원 대부분이 호남 출신인 만큼 현실적으로 지역 민심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예이다.

이날 두 차례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인준 문제를 놓고 감론을박이 벌어졌다. 상당수의 호남 중진의원들은 ‘선(先) 인

준-후(後) 재발방지책 마련’을 내세워 협조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재선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입장표명을 강하게 요구하며 맞섰다. 특히 비 호남출신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결국 협조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는 청와대의 오전 인사검증 기준 강화에 대한 입장 발표로 강경파의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진 데다, 오후 들어 문 대통령이 인선 검증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호남 중진의원들의 압박도 한 몫했다.

호남 4선인 박지원 전 대표는 불교방송 광주에 출연해 “흠결이 나왔지만 특히 광주에서는 실제로 여러 가지 정서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고 국가 대개혁을 위해서 인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호남이 최대 지역적 기반인 국민

의당이 대선에서의 ‘호남 패배’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호남 총리 후보자를 반대하는 데 대한 부담이 컸던 셈이다.

새 정부가 안착하기 전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국민적 비판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여야 간 대치정국이 벌어진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효과도 노렸다는 관측이다.

다만, 국민의당은 위장전입을 비롯한 5대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장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물러가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유정 대변인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주수지에 대한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논평을 내고 “위장전입 문제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했고, 증여세는 3년 동안 꿈에도 낼 생각 안하고 있다가 장관 지명 후 부랴부랴 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무안출발 일본여행

2017. 07. 07(금) ㅈ~우~목~

2억원 영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 062-234-3222

F A 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대표이사
최금환

NAVER [조이투어](http://www.joytour.kr)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기타큐슈

일본국적 스타플라이어

※ 선착순 한정 특가

선박+항공

3일 북큐슈 298,000원 부터 (온천펜션)

4일 북큐슈·야마구치 398,000원 부터 (온천펜션+호텔)

항공 3일

북큐슈 3일 498,000원 부터 (온천펜션)

큐슈·야마구치 3일 598,000원 부터 (온천펜션+호텔)

항공 4일·5일

북큐슈 4일 598,000원 부터 (온천펜션+호텔)

큐슈·오사카 5일 698,000원 부터 (온천펜션+호텔)

자유여행 항공권 198,000원(TAX포함) 부터

*포함 사항 : 왕복항공료, 항공TAX, 일본 현지 차량, 전 일정 식사, 관광지 입장료, 한국어 가이드, 해외여행자보험
*별도결제항 : 개인 여권 및 경비, 기사/가이드 경비(₩30,000/인)

삿포로

한국국적 대한항공

대한항공으로 무안에서 떠나는 북해도 낭만여행

4일 1,390,000원 부터

5일 1,499,000원 부터

자유여행 4일 799,000원 부터 (왕복항공료 및 비즈니스호텔 2박)

자유여행 5일 899,000원 부터 (왕복항공료 및 비즈니스호텔 2박)

*포함 사항 : 왕복항공료, 항공TAX, 일본 현지 차량, 전 일정 식사, 관광지 입장료, 한국어 가이드, 기사/가이드 경비, 해외여행자보험
*별도결제항 : 개인 여권 및 경비, 상급차지

다낭

한국국적 티웨이항공

아름다운 해변의 백사장과 밤하늘의 낭만이 춤추는 베트남 다낭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친 美親 초!! 특가

5일 399,000원 부터

6일 399,000원 부터

*상품 특선 : 투번강루에몽공예마을+도자기마을, ICE 커피 한잔, 열대 과일, 밤 마사지 60분(탑,랜드,노니베어 1개/인)
*포함 사항 : 왕복항공료, 호텔(2인1실), 차량, 열대품 생화 식사, 관광지 입장료, 한국어 가이드, 여행자보험, 스타 마사지 1시간
*별도결제항 : 기사/가이드 경비(\$50/인-6일, \$60/인-6일) ※상급, 이틀 당일 렌터카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등2003-1호

◆ 공통조건 :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차보통 가입(여행상품 : 1만원, 국내상품 5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회 및 부도 이원료, 유틸리티요금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열차 / 전 지역 ◆ 상가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입보증보험 가입 / 여행결제 기금 업체 ◆ 예약시 계약서(세무서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고 기입 바랍니다. ◆ 경비(입출금,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착순권,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용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